



tvN '사랑의 불시착'의 북한군 중대원 4인방 탕준상·양경원·이신영·유수빈. (왼쪽부터) 사진출처 | 이신영 인스타그램

현빈 옆 4인방에 '심쿵'

양경원·이신영·유수빈·탕준상
'사랑의 불시착' 중대원들 존재감

케이블채널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의 매력에 빠진 시청자 시선을 의외의 인물들이 빼앗고(?) 있다. 극중 북한군 장교역을 맡은 현빈의 중대원들인 양경원·이신영·유수빈·탕준상이 개성 넘치는 매력으로 예상치 못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시청자 눈도장을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인상이 가장 험악한 양경원은 그만큼 외모로 시선을 붙잡는다. 하지만 수다쟁이라는 캐릭터로 시청의 묘미를 안겨준다. "호랑이를 잡아봤다"고 허세를 부리지만 쥐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반전'의 인물이다. 여주인공 손예진과는 '통과 제리'처럼 아웅다웅하는 관계로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한다. 오랫동안 뮤지컬과 연극 무대에서 활동해오다 드라마 데뷔작에서 얼굴을 알리는 기회를 잡았다.

이신영·유수빈·탕준상은 훈훈한 매력으로 시청자의 눈을 즐겁게 한다. 이신영이 맡은 캐릭터는 오디션 조건에 '북한사람처럼 보이지 않는'이라는 조건이 들어갈 만큼 외모 비중이 컸다. 제작진이 의도한 바가 적중하면서 이신영은 새로운 '훈남'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주막'이라는 독특한 이름의 캐릭터인 유수빈은 귀여움으로 여성 팬들의 관심을 얻고 있다. 극중 한국드라마 마니아답게 한국의 유행 정보를 능청스럽게 알려주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처진 눈 꼬리와 두꺼운 입술에서 풍기는 선한 인상도 매력 지수를 높인다.

중대원 중 가장 막내인 금은동 역의 탕준상은 차분함으로 다른 세 사람과 분위기의 균형을 맞춘다. 올해 데뷔한 이신영·유수빈에 비해 활동 무대가 넓은 탕준상은 영화 '나랏말싸미' '생일' 등에 출연하며 관객에게 얼굴을 알렸다. 이번에는 안방극장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겠다는 각오로 참여하고 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에듀윌

'2020 에듀윌 多 통하는 일반 상식 통합 기본서'

취업 트렌드로 떠오른 '상식'...사회적 이슈 파악은 기본

금융권을 비롯한 공기업, 언론사에서 필기시험과 함께 면접전형 내에서도 '상식'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불어 출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필기전형부터 일반상식 관련한 기본적인 문항을 출제하거나 토론 및 면접 전형에도 거시적인 사회적 이슈나 현안에 대해 묻는 등 지원자가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알맞게 개진해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기업이 지원자의 '기본 소양'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은 '2020 에듀윌 多 통하는 일반상식 통합 기본서'를 출간해 구직자들이 상식 분야를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에듀윌의 '多 통하는 일반상식'은 공기업이나 대기업 면접을 대비한 일반상식 도서로 기초상식부터 응용상식까지 모두 담은 것이 특징이다.

해당 교재는 각종 면접을 앞둔 학습자들이 상식 공

명과 암 엇갈린 '2019년 가요계' 결산



그들 방탄소년단은 2019년에도 케이팝의 세계적 명성을 높였다. 사진은 방탄소년단이 25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포토월에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주현희 기자 teth1147@donga.com

방탄이 키운 시장, 오디션이 '찬물'

2019년 가요계는 명과 암이 극명하게 엇갈린 한 해였다. 방탄소년단의 등장 이후 케이팝이 세계 음악시장에서 주류로 올라섰다. 방탄소년단과 슈퍼엔, 블랙핑크 등 케이팝 스타들의 빛나는 성취는 한국을 넘어 세계 대중음악사를 새로 쓰게 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부 가수들의 잇단 사건과 사고로 얼룩지기도 했다. 대중가요사에 큰 오점을 남긴 버닝썬 사건, 오디션 열풍을 정점으로 끌어올린 '프로듀스' 전 시즌 조작 논란 등은 케이팝의 위상을 무색하게 한 사건들이었다.

●방탄소년단·슈퍼엠 '노는 물이 달라'

올해도 방탄소년단은 '윙윙' 날았다. 자신들에게 불가능한 무대는 없다는 듯,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갔고 엄청난 수익도 거둬들였다. 4월 발표한 '맴 오브 더 솔:페르소나'를 통해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200' 1위에 오르며 세 음반 연속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또 이 앨범을 통해 한국가수 최초로 영국 오피셜차트 앨범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이 같은 성과는 앨범 발표와 동시에 진행된 스타디움 투어의 성공적 개최로 이어졌다.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를 통해 연 100만여 관객을 끌어모았고, 티켓 판매 금액도 1360억 원(미

BTS 투어 수익금 무려 1360억원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3관왕 쾌거

승리·양현석 논란으로 'YG' 흔들
프듀 조작으로 오디션 신뢰 추락

국 박스스코어 집계)에 달했다.

아쉽게도 미국 3대 대중음악상 중 하나인 그래미 어워즈 진출은 불발됐지만, 지난달 25일(한국시간) 미국 LA 마이크로소프트 씨어터에서 열린 '2019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시상식에서 '페이보릿 듀오 오어 그룹-팝/록'과 '투어 오브 더 이어',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등 3관왕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올해 방탄소년단 못지않게 눈부신 활약을 펼친 그룹은 또 있다. 프로젝트 그룹 슈퍼엠은 10월 미국 무대에 데뷔하면서 동시에 첫 번째 미니음반 '슈퍼엠'을 통해 빌보드 정상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의 뒤를 이어 빌보드를 점령할 가수가 누구일지 국내외 호기심이 집중된 가운데 엑소, 샤이니, NCT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이 힘을 합쳐 만든 슈퍼엠이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케이팝의 위상을 알렸다.

●성범죄·마약·자살·조작...

화려한 조영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올해 초 그룹 빅뱅의 멤버 승리가 사내이사로 있던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촉발된 논란은 아이돌 스타들의 성폭력과 불법 동영상 촬영, 마약 등 각종 범죄들이 줄줄이 드러나는 단초가 됐다. 빅뱅, 투에니원, 블랙핑크 등을 키워낸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인 YG엔터테인먼트의 수장 양현석 전 대표프로듀서가 외국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협박 등 혐의로 입건되기까지 했다. 결국 양현석은 모든 직책에서 물러났고, 승승장구하던 'YG제국'도 휘청거렸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에 휘말린 정준영, 최중훈 등 가수들도 잇따라 구속되며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충격적인 사건이 또해질 무렵 케이블채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전 시리즈 조작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와 정체성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등 방송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연이은 흥행으로 '스타 PD'로 군림했던 연출자 안종영 PD와 김용범 CP는 구속되며 시청자들에게 엄청난 배신감을 안겼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레드벨벳, 웬디 사고로 연말 무대 '울스툼' KBS·MBC 무대는 '컬래버'만 소화

걸그룹 레드벨벳이 멤버 웬디가 당한 예기치 못한 사고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레드벨벳의 메인보컬인 웬디(손승완·24)가 25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19 SBS 가요대전' 리하설 도중 2m 높이의 무대 아래로 떨어져 얼굴을 다치고 오른쪽 골반과 손목이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다. 26일 현재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그녀는 당분간 치료에 전념할 예정이다.

팬들의 안타까운 시선은 레드벨벳의 향후 활동 여부에도 쏠린다. 레드벨벳은 23일 4개월 만에 리패키지 앨범 '더 리브 페스티벌 피날레'를 발표하고 각종 음원사이트를 휩쓰는 등 '흥행몰이'를 이어가던 중이었다. 신곡 '사이코'(Psycho)로 음원과 음반 차트 1위에 올랐고,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에서도 전 세계 42개 지역에서 1위를 기록하며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앞서 8월 발표한 미니음반 '더 리브 페스티벌

데이 2'보다 성과가 크다.

당초 레드벨벳은 이번 앨범 활동을 각 방송사 연말 대형 무대에 출연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다만 웬디의 부상으로 27일 KBS 2TV '가요대축제'와 31일 MBC '가요대제전'에서는 그룹 무대는 소화할 수 없게 됐다. 멤버 전원이 무대에 설 수 없는 상황이어서 레드벨벳은 각 멤버별로 동료 가수들과 컬래버레이션 무대만 꾸밀 예정이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9

2019년 12월 27·28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3

팬수, 보신각 제야의 종 울린다



팬수

대세 캐릭터 팬수가 2020년 새해의 시작을 알린다. 서울시는 26일 "팬수가 시민대표 11인에 포함돼 박원순 서울시장 등과 31일 자정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제야의 종을 33번 울린다"고 밝혔다. 팬수를 비롯한 시민대표들은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올해를 빛낸 인물로 추천받았다. 팬수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블핑 '킬 디스 러브' 최고 뮤비 선정

걸그룹 블랙핑크의 '킬 디스 러브'가 올해 세계 최고 뮤직비디오에 선정됐다. 세계적인 권위의 음악전문지 트랙리스트는 26일 '2019 년 세계 최고의 뮤직비디오'로 '킬 디스 러브'를 뽑았다. '킬 디스 러브'는 세계 유력 음악평론지 피치포크가 뽑은 '올해의 뮤직비디오', 미국 문화 예술계 유력지 '페이퍼' 매거진이 뽑은 '올해의 곡' 1위에도 오른 바 있다.

EBS '보니하니' 내달 20일 방송 재개

미성년자 폭행·성희롱·육설 논란으로 방송을 중단했던 EBS 1TV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가 내달 1월20일 다시 방송한다. 앞서 '보니하니'는 미성년자인 버스터즈 채연을 개그맨 최영수와 박동근이 폭행·성희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EBS는 이들을 하차시켰다. 채연은 다시 방송에 나온다. EBS는 이와 함께 어린이 청소년 출연자 인권보호 보강, 출연자 선정 과정 전면 재검토 및 방송 관계자와 전문가의 출연자 선정 공동 심사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이다.

편집 | 김대권 기자 bong82@donga.com

교육·퍼즐

에듀윌

'2020 에듀윌 多 통하는 일반 상식 통합 기본서'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1~9까지의 숫자를 사용해 가로, 세로,대각선 방향은 물론 작은 정사각형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골고루 들어가도록 해 보세요.

■ 스도쿠문제

	9	6						
		7		3				8
				2	6	7		4
			3	1		4	9	
	2	8				5	7	
		9	7		2	4		
9	7		6	1	3			
5				7		2		
						1	9	

				1		7		
6	3	4					2	7
				6		2		
2		8		9		5		6
			4		8			
7		5		1		3		4
			3		4			
9	1	7				6	4	3
			9		1			

■ 스도쿠정답

7	6	1	8	2	5	4	9	3
8	9	2	6	7	1	8	5	9
4	5	8	1	9	2	7	3	6
9	8	4	2	8	4	6	5	1
1	7	9	6	3	8	2	7	4
2	8	6	4	5	1	8	9	7
6	4	8	7	9	2	5	1	8
8	1	9	5	8	6	7	4	2
5	2	7	1	4	8	9	6	3

2	5	7	1	9	6	8	9	4
8	4	9	5	2	8	7	1	6
8	6	1	4	7	8	9	2	5
4	8	8	9	1	2	5	6	7
7	2	6	8	5	4	1	9	3
9	1	5	8	6	7	8	4	2
5	8	2	4	9	6	7	1	3
1	7	2	6	8	5	4	8	9
6	9	4	7	1	2	5	9	8